

#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기자회견

2007년 3월 12일  
한국

**진행자:** 이번 8차 협상 기간 내내 좋은 보도 장비를 제공해주신 외교통상부의 한 선생님과 임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동일한 원칙 하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천천히 말씀해주시고 기자분의 성함과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하나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커틀러 대표:**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협상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미 FTA 마지막 공식 협상인 8차 협상을 끝내고 이자리에 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협상 중인 분야도 있어서 아직 이번 회담이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협상이 시작될 때, 저는 이번 협상이 아주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며,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이 점을 말씀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주에 통관, 정부 조달, 경쟁 등 중요한 3개 분과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외에 8개 분과 협상이 타결에 근접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근접했습니다. 현재 한두가지 미해결 쟁점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8개 분과는 금융서비스, 서비스,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통신, 전자상거래, 투명성, 분쟁해결, 기술장벽입니다. 자동차와 농업과 같이 아주 민감한 사안들 중 일부는 이번 협상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논의 중일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더 많은 노력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지적재산권, 공산품 관세, 투자, 비합치조치 등 다른 많은 분야들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측 협상 대표들, 김종훈 수석 대표와 저는 이들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주에 이루어낸 진전을 바탕으로 저는 양국에 상호 지속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협상 체결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그 어느 때 보다도 긍정적인 한국측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주에 만난 재계, 정계, 언론계 인사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은 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필연성이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이에 동의합니다.

이제 다음 조치를 위해 저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고 김대표도 이곳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김대표와 저는 다음주초 워싱턴에서 논의를 재개하여 미결된 모든 사안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상 동안에 미결 사안들이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일을 맡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아직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주 워싱턴에서의 진전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3월말까지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공식 협상인 이번 8차 협상에서 얻은 전례없는 진전 덕분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진행자:** 첫번째 질문은 국내 언론에서 받겠습니다. 매일경제?

**질문:** 저는 매일경제의 전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자동차 분과는 예상보다 더욱 어려운 협상을 벌이고 있어서 미국측이 자국 업계의 압력을 인식하여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측은 어떤 수준의 세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수석대표급 협상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커틀러 대표:**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문제는 미국측의 핵심 우선 사항입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 확대가 이번 협상에서 최우선 의제였습니다. 김대표와 저는 이번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분명 양국 간에 관세 철폐 단계와, 이번 협상을 통해 철폐하려는 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제가 김대표와 다음주 다시 만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 전에 내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은 외신에서 받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질문:** 안녕하십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농업인 것 같은데요. 농업 분야의 진행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쌀이 아직 논의 대상입니까?

**커틀러 대표:** 농업 분과 협상은 이번주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농업 분과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겠군요. 하지만 미국측 농업 협상단은 서울에 남아 계속 협상에 임할 것이고, 크라우더 미국 무역대표부 농업담당 수석협상관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협상에 참여하여 민차관보와 이 문제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크라우더 대표가 이곳에서 협상하는 동안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진행자:** 다시 국내 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연합뉴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연합뉴스입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 무역대표부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서 강한 압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노동 문제에 압력을 높이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자동차와 관련하여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커틀러 대표:** 일반적으로 무역대표부에서 우리는 압력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몇달간 미국에서도 분명 한미 FTA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7차와 이번 8차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덕택에 미국 이해 당사자들이 FTA 를 이제 실제로 가능한 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남은 협상 기간동안 우리는 우리의 이해 당사자와 특히 의회에서 나온 조언, 제안, 우려사항 등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미국을 위해 좋을 뿐 아니라 한국에도 좋은 협정을 맺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진행자:** 외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룸버그?

**질문:** 블룸버그 뉴스의 구희진입니다. 크라우드 대표와 민 차관보가 다음주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고기 문제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을 체결하는데 소고기 문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장개방이라는 것의 어느 수준, 그러니까 무역대표부는 여전히 완전한 시장 개방을 원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커틀러 대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재개방은 여전히 미국의 핵심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FTA 협상과 별개 사항입니다. 리처드 크라우드 대사가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뿐 아니라 쇠고기 문제 역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주 한국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논의되길 바랍니다. 최근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동물 검역에 대한 국제전문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이번 주말에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 평가는 광우병에 대한 미국의 통제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산 소, 쇠고기, 쇠고기 관련 제품이 소의 연령에 관계없이 국제 지침에 따라 모두 안전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인, 한국인을 포함해 전세계 사람들에게 어떠한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고 봅니다.

**진행자:** 한 두가지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문의 김 기자님.

**질문:** 서울 신문의 김 기자입니다. 방금 3 월 19 일부터 21 일까지 서울에서 농업분과 협상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수석대표 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석대표 회담은 일부 쟁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담에는 양측 수석대표만 참석합니까, 아니면 섬유 분야와 같은 다른 고위급 회담도 진행됩니까?

**커틀러 대표:** 섬유분야 협상이 정확히 언제 어떤 식으로 재개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김종훈 대표가 워싱턴으로 오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있을 김종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분야에 대해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머리를 맞대도, 심지어 다음 주 워싱턴 회담이 끝난 후에도 일부 쟁점은 수석대표급 이상 고위급 차원에서 다뤄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두가지 미해결 쟁점에 대해서는 장관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AP 기자분?

**질문:** AP의 켈리 올슨 기자입니다. 혹시 한미 양국 대통령의 개입이 필요한 쟁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커틀러 대표:** 현 시점에서는 다음 주 김종훈 대표와 만나 진전을 이뤄내야 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쟁점은 장관급이나 그 이상의 수준에서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계일보 기자님?

**질문:** 세계일보입니다. 이번 8차 회담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 및 자동차 분야는 회담 마지막까지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구제 역시 한국측에 큰 쟁점인데 이 분야의 진전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무역구제 분야의 한국측 제안에 대해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커틀러 대표:** 7차 회담 때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이해관계에 대해 김종훈 대표와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주 김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 워싱턴에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또한 제가 내일 귀국해 수요일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고민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국측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측에도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야에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무역구제 분과 회의에서 다루어졌는데 양국은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에 대한 이견을 좁혔지만 아직 한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진행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드신 것 같은데요.

**질문:** 한국경제신문의 김 현석 기자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를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자동차 업체는 즉각적인 관세 철폐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철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이 국내 자동차 세제의 일부 차별적인 요소를 없앨 경우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즉각적으로 철폐할 수 있습니까?

**커틀러 대표:** 자동차 분야의 경우 한국의 자동차 세제상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국측에 관심과 개선을 요구한 다른 비관세 조치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표준 지침, 규제 문제, 투명성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와 맺은 FTA의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팔리는 미국산 자동차는 약 4천 대에 불과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약 80 만대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다른 FTA 에서 체결된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와는 상황이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순위로 두고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